

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9)*

—권8, 13:08-14:08 부분을 중심으로—

손명기**

요약

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『瑜伽師地論』(Yogacārabūṃṃmi) 권8 중 13장 8행부터 14장 8행까지의 해독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.

핵심어: 유가사지론, 점토구결

본고에서 해독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三種 雜染¹⁾ 중 ‘業雜染’의 9가지 연고²⁾에서 ‘分別’에 관한 내용으로, 특히 ‘妄言’(13:08-13:19)과 ‘離間語’(13:20-14:08)에 해당한다.³⁾

구체적인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A, B, C, D, E로 나누어 제시하였다.

*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(2003년 3월 26일, 4월 16일)에서 강독한 요지 문에,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첨부하여 수정한 것이다.

** 대전대학교 강사.

1) ‘三種雜染’으로는 ‘煩惱雜染’, ‘業雜染’, ‘生雜染’이 있다.

2) ‘煩惱雜染’, ‘業雜染’, ‘生雜染’은 각각 9가지 연고로 ‘自性, 分別, 因, 位, 門, 上品, 顛倒攝, 差別, 過失’이 있다.

3) 유가사지론 권8의 내용은 박진호(2004:215-219) 참조.

- A: 한문 원문과 원문에 현토된 점토와 부호의 위치 및 형태 표시.
 B: 한문 원문에 A의 점토를 자토구결자로 바꾸어 표시.
 C: 한문 원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고 생략된 토를 보충⁴⁾하여 자토 석독구결 형식으로 바꾼 것.
 D: C의 문장을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.
 E: 해당 부분의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.

해독안

<유가08 13:08>

- A: 復次諸妄語者[51(·)]者[23~33(·)]此[33(·)]是揔句[22~32(·),55(·)]
 B: 復次諸妄語者[1]者[xλ 1]此[1]是揔句[1, 55]
 C: 復 次 諸 妄語者(1) 1 {者}xλ 1 此 1 是 揔句 1 55
 D: 또 다음으로 모든 妄語者라 함은, 이는 揔句이며
 E: (다음에) 거짓말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,

<유가08 13:08-09>

- A: 若王[51(·)]⁵⁾者[23~33(·)]謂王家[22~32(·),55(·)]
 B: 若王[1]者[xλ 1]謂王家[1, 55]
 C: 若 王(1) 1 {者}xλ 1 謂 王家 1 55
 D: 王이라 함은, 즉 王家이며
 E: 왕이라 함은 왕가이며,

<유가08 13:09-09>

4) C에서 보충한 토는 ()로 표시하였다.
 5) 점토가 한자의 획 가까이에 기입되어 있다.

A: 若彼使[51(·)]者[23~33(·)]謂執理家[22~32(·),55(·)]

B: 若彼使[1]者[xλ 1]謂執理家[11, 55]

C: 若 彼 使(11) 1 {者} xλ 1 謂 執理家 11 55

D: 그 使라 함은, 즉 執理家이며

E: 그의 심부름꾼이라 함은 일을 맡은 이이며,

<유가08 13:09-10>

A: 若別[51(·)]者[23~33(·)]謂長者[31(·)]居士[31(·),55(·)]

B: 若別[1]者[xλ 1]謂長者[11]居士[11, 55]

C: 若 別(11) 1 {者} xλ 1 謂 長者 11 居士 11 (11) 55

D: 별이라 함은, 즉 長者와 居士이며

E: 다른 이들이라 함은 장자와 거사이며,

<유가08 13:10-10>

A: 若衆[51(·)]者[23~33(·)]謂彼[23(·)]聚集[55(·)]

B: 若衆[1]者[xλ 1]謂彼[23]聚集[55]

C: 若 衆(11) 1 {者} xλ 1 謂 彼 23 聚集 55

D: 衆이라 함은, 즉 그곳의 聚集한 이이며

E: 무리라 함은 거기에 모인 이들이며,

<유가08 13:10-11>

A: 若大集中[=51(·)]者[23~33(·)]謂四方人衆[23(·)]聚集處[22~32(·) ? ,55(·)]

B: 若大集中[1]者[xλ 1]謂四方人衆[23]聚集處[11, 55]

C: 若 大集中(11) 1 {者} xλ 1 謂 四方 人衆 23 聚集處 11 55

D: 大集中이라 함은, 즉 四方 人衆의 聚集處이며

E: 크게 모인 가운데서라 함은 사방의 인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,

<유가08 13:11-12>

A: 若已知[51(·)]者[23~33(·)]謂隨前三[34(·),21(·)]所經[33(\\),42(·)]
語言[22~32(·),55(·)]

B: 若已知[1]者[x入1]謂隨前三[乙,ノ]所經[ノ1,七]語言[11,ㄱ]

C: 若 已知(11) 1 {者}x入1 謂 前 三乙 隨ノ 經ノ1 所七 語言 11ㄱ

D: 已知라 함은, 즉 앞 셋을 따라 겪은 바의 語言이며

E: 이미 알았다 함은 앞의 세 가지 것을 따라 겪게 된 말이며,

<유가08 13:12-13>

A: 若已見[51(·)]者[23~33(·)]謂隨[역독선]曾見[45(\\),21(·)]所經[33(\\),
42(·)]語言[22~32(·),55(·)]

B: 若已見[1]者[x入1]謂隨曾見[x入乙,ノ]所經[ノ1,七]語言[11,ㄱ]

C: 若 已見(11) 1 {者}x入1 謂 曾 見x入乙 隨ノ 經ノ1 所七 語言 11ㄱ

D: 已見이라 함은, 즉 일찍이 본 것을 따라 겪은 바의 語言이며

E: 이미 보았다 함은 일찍이 보았던 대로 겪게 된 말이다.

<유가08 13:13-14>

A: 若由自因[34(·),24(·),51(·)]者[23~33(·)]謂[33(·)]或因怖畏[34(·),21
(·),35(·)]或因味着[34(·),21(·),35(·),+15~25(/),51(·)]

B: 若由自因[乙, ㅅ, 1]者[x入1]謂[1]或因怖畏[乙, ㅅ, ㄱ]或因味着[乙, ㅅ,
ㄱ,x矢, 1]

C: 若 自因乙 由 ㅅ 1 {者}x入1 謂 1 或 怖畏乙 因ㅅ(ㅅ)ㄱ 或 味着乙
因ㅅ(ㅅ)ㄱx矢 1

D: 自因을 말미암다 함은, 즉 혹 怖畏을 말미암아 하고 혹 味着을 말
미암아 하고 하는 것이다.

E: 자신의 원인으로 말미암았다 함은 혹은 두려워한 탓이기도 하고 혹
은 맛에 집착한 탓이기도 하니,

<유가08 13:14-15>

A: 如由自[23(·)]因[34(·),22(·),=45(\\),11(/)]他因亦尔[=51(·)]

B: 如由自[ㄹ]因[乙, 3, x入乙, ㄴ 支]他因亦尔[1]

C: 自ㄹ 因乙 由 3 x入乙 ㄴ {如}支 他 因 亦 尔(ㄴ) 1

D: 자신의 원인을 말미암아 하는 것과 같이 남의 원인 또한 그러하다.

E: 자신의 원인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다른 이의 원인 역시 그러하다.

<유가08 13:15-16>

A: 因怖畏[34(·),21(·)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)]謂[33(·)]由怖畏
煞縛[35(·)]治罰[35(·)]黜責[35(·)]等故[15~25(\\),44~45(/),=24(·),4
3(·),21(·),지시선(\\)6](因[25(/),55(·)7],구분선8))

B: 因怖畏[乙, ㄴ, x矢, 1]者[x入 1]謂[1]由怖畏煞縛[ㄴ]治罰[ㄴ]黜責[ㄴ]
等故[x矢, x入乙, 3, ㄴ, ㄴ](因[x矢, 3])

C: 怖畏乙 因ㄴx矢 1 {者}x入 1 謂 1 煞縛(ㄴ)ㄴ 治罰(ㄴ)ㄴ 黜責(ㄴ)
ㄴ 等x矢 怖畏x入乙 由 3 (1) ㄴ故 ㄴx矢 3

D: 怖畏를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煞縛하거나 治罰하거나 黜責하거나 하는 따위를 怖畏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하는 것이며

E: 두려워한 탓이라 함은 죽이고 속박하고 형벌로 다스리고 내쫓고 꾸짖는 따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요,

6)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환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경준(2003:203-204) 참조.

7) ‘因’에 현토된 점토들이지만 앞 글자 ‘故’에 지시선이 있으므로 ‘故’에 현토된 것으로 해석한다.

8) 두 글자 사이에 기입된 점토가 어느 글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선을 ‘구분선’으로 칭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다. 이 경우 ‘故’와 ‘因’ 사이의 사선(/)이 ‘因’에 현토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‘구분선이 사용되었다.’

<유가08 13:16-17>

- A: 因([+15~25(/),55(·),구분선])⁹⁾味着[34(·),21(·),+15~25(/),51(·)]者
[23~33(·)]謂爲財穀珍寶等[34(/)¹⁰⁾,+45(/),43(·),빼침선(31,\)]故[2
1(·),+25#15~25(/),55(·)]
- B: 因味着[乙,ㄷ,x矢,ㅣ]者[xλγ]謂爲財穀珍寶等[ㄴγ 乙,xλ乙,m]故[ㄴ,
x矢,ㄱ]
- C: 味着乙 因ㄷx矢ㅣ{者}xλγ 謂 財穀 珍寶 等ㄴγ 乙 爲xλ乙m故
ㄴx矢ㄱ
- D: 味着을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財穀 珍寶 따위를 위한 까
닭으로 하는 것이며
- E: 맛에 집착한 탓이라 함은 재물과 곡식과 값진 보배 따위를 위한 까
닭이며,

<유가08 13:17-18>

- A: 知[15~25(·)¹¹⁾]而[43(·)]說[역독선]妄語[34(·),+15~25(/),51(·)]者
[23~33(·)]謂覆想欲見[43(·)]而[43(·)]說語言[34(·),+25(/),51(·)]
- B: 知[口ハ]而[m]說妄語[乙,x矢,ㅣ]者[xλγ]謂覆想欲見[m]而[m]說語
言[乙,x矢,ㅣ]
- C: 知口ハ 而m 妄語乙 說x矢ㅣ{者}xλγ 謂 覆想欲見m 而m 語言
乙 說x矢ㅣ
- D: 알고서 妄語를 말하는 것이다 함은, 즉 覆想欲見으로 語言을 말하
는 것이다.
- E: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 함은 생각을 숨기고 하고 싶어하는 소견으
로써 말을 하는 것이다.

9) ‘因’에 현토되어 있지만 앞 문장 새김과 관련 있는 점토들이다.

10) [34~35(/)]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.

11) [25(·)]로 파악하여 ‘知矢’로 볼 가능성도 있다.

<유가08 13:18-19>

- A: 此[42(·)]中[22(·),42(·)]略義[22~32(·)]者[15~25(-),23~33(·)]謂依處[43(·)]故[55(·)]異說[43(·)]故[55(·)]因緣[43(·)]故[55(·)]壞想[43(·)]故[21(·)]而[43(·)]說妄語[34(·),33~43(:)¹²]]應知[42(·),51(·)?]
- B: 此[七]中[3,七]略義[11]者[尸,入 1]謂依處[ㄴ]故[ㄹ]異說[ㄴ]故[ㄹ]因緣[ㄴ]故[ㄹ]壞想[ㄴ]故[ㄴ]而[ㄴ]說妄語[乙,x印]應知[ㄴㄱ七, 1]
- C: 此七 中 3 七 略義 11 {者}尸入 1 謂 依處 ㄴ {故} ㄹ 異說 ㄴ {故} ㄹ 因緣 ㄴ {故} ㄹ 壞想 ㄴ 故 ㄴ 而 ㄴ 妄語 乙 說 x印 知 ㄴ ㄱ {應} 七 1
- D: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, 즉 依處 때문이며 異說 때문이며 因緣 때문이며 壞想 때문에 妄語를 말하는 것인 줄, 알아야 할 것이다.
- E: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, 의지하는 곳 때문에, 다른 설명 때문에, 인연 때문에, 무너뜨릴 생각 때문에, 거짓말을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.

<유가08 13:20>

- A: 復次[23(·)]離間語者[51(·)]者[23~33(·)]此[33(·)]是捨句[22~32(·), 55(·)]
- B: 復次[ㄹ]離間語者[1]者[x入 1]此[1]是捨句[11, ㄹ]
- C: 復 次 ㄹ 離間語者(11) 1 {者}x入 1 此 1 是 捨句 11 ㄹ
- D: 또 다음으로 離間語者다 함은, 이는 捨句이며
- E: (다음에) 이간질의 말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충구이며,

<유가08 13:20-21>

- A: 若爲破壞[31(·),+15~25(/),=51(·)]者[23~33(·)]謂由破壞意樂[34(·), 24(·),43(·)]故[21(·),25(/),55(·)]

12) [33(·),33~43(·)]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.

B: 若爲破壞[人,x矢, |]者[x入 7]謂由破壞意樂[乙, 3, ㄴ]故[ノ, x矢, 分]

C: 若 破壞(ㄴ){爲}人ㄴx矢 | {者}x入 7 謂 破壞意樂乙 由 3 (7)ㄴ故
ノㄴx矢 分

D: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破壞意樂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하는 것이며

E: 파괴하기 위하여서라 함은 파괴하려는 뜻이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3:21-23>

A: 聞彼語[34(·), 15~25(-)]已[+15(·)]向此[34(·), 22(·)]宣說[35(·)]聞此語[34(·), 15~25(-)]已[+15(·)]向彼[34(·), 22(·)?]宣說[35(·)?, +15~25(/), 51(·)]者[23~33(·)]謂隨所聞[33(ㄴ), 34(·), 21(·)]順乖離[44(·), 33(/)]語[34(·), +15~25(/), 55(·)]

B: 聞彼語[乙, 尸]已[口]向此[乙, 3]宣說[ㄱ]聞此語[乙, 尸]已[口]向彼[乙, 3]宣說[ㄱ, x矢, |]者[x入 7]謂隨所聞[ノ 7, 乙, ノ]順乖離[+, ㄴ 7]語[乙, x矢, 分]

C: 彼 語乙 聞尸 已(3 ㄴ)口 此乙 向(ㄴ)3 宣說(ㄴ)ㄱ 此 語乙 聞尸 已(3 ㄴ)口 彼乙 向(ㄴ)3 宣說(ㄴ)ㄱx矢 | {者}x入 7 謂 聞ノ 7 所乙 隨ノ 乖離+ 順ㄴ 7 語乙x矢 分

D: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을 향하여 宣說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저 사람을 향하여 宣說하고 하는 것이다 함은, 즉 들은 바를 따라 어긋남에 따르는 말을 하는 것이며

E: 거기의 말을 듣고 이에게 향하여 널리 말하고 여기의 말을 듣고 그에게 향하여 널리 말한다 함은 듣게 됨에 따라서 배반하고 떠나도록 하게 하는 말을 말하며,

<유가08 13:23-14:01>

A: 破壞和合[51(·)]者[23~33(·)]謂能[55(·)?]生起喜別離[34(·), 43~53

(:)#43~53(l)]故[55(·)]

- B: 破壞和合[l]者[xλ 7]謂能[ㄱ]生起喜別離[乙, x ㄴ]故[ㄱ]
 C: 破壞和合(ㄱ) l { 者 } x λ 7 謂 能 ㄱ 喜別離 乙 生起 x ㄴ { 故 } ㄱ
 D: 破壞和合이라 함은, 즉 능히 喜別離을 일으키는 까닭이며
 E: 함께 어울려 합하여 있는 것을 깨뜨린다 함은 기뻐하면서 이별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<유가08 14:01-02>

- A: 隨印別離[51(·)]者[23~33(·)]謂能[55(·)]乖違[44~55(\\)]喜[22~32(·)]更[22(·)]生[43~53(l)]故[55(·)]
 B: 隨印別離[l]者[xλ 7]謂能[ㄱ]乖違[x +]喜[ㄱ]更[ㄱ]生[x ㄴ]故[ㄱ]
 C: 隨印別離(ㄱ) l { 者 } x λ 7 謂 能 ㄱ 乖違 x + 喜 ㄱ 更 ㄱ 生 x ㄴ { 故 } ㄱ
 D: 隨印別離라 함은, 즉 능히 乖違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다시 생기는 까닭이며
 E: 그대로 이별이라는 자취가 남는다 함은 배반하고서도 기쁨이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.

<유가08 14:02-03>

- A: 熈壤和合[51(·)]者[23~33(·)]謂於已生[33(/)]喜別離[42(·)]中[44(·)]心染汙[43~53(l)]故[55(·)]
 B: 熈壤和合[l]者[xλ 7]謂於已生[ㄴ 7]喜別離[ㄴ]中[+]心染汙[x ㄴ]故[ㄱ]
 C: 熈壤和合(ㄱ) l { 者 } x λ 7 謂 { 於 } 已 生 ㄴ 7 喜別離 ㄴ 中 + 心 染 汙 x ㄴ { 故 } ㄱ
 D: 熈壤和合이라 함은, 즉 이미 생겨난 喜別離의 가운데에 마음이 染汙하는 까닭이며
 E: 함께 어울려 합하여 있는 것을 기꺼이 무너뜨린다 함은 이미 기뻐

하게 된 이별 가운데서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4:03-04>

- A: 樂印別離[51(·)]者[23~33(·)]謂於乖違[44~55(\),24(·)]喜[22~32(·)]更[22(·)]生[24(\),42(·)]中[44(·)]心染汙[43(l)#43(·)]故[55(·)]
- B: 樂印別離[]者[xλ7]謂於乖違[x+, 3]喜[11]更[3]生[ノ个, 七]中[+]心染汙[xm]故[5]
- C: 樂印別離(11)1{者}xλ7 謂 {於}乖違x+3 喜11 更3 生ノ个七 中+ 心 染汙xm{故}5
- D: 樂印別離라 함은, 즉 乖違한 것에 대해서야 기쁨이 다시 나는 가운데에 마음이 染汙하는 까닭이며
- E: 즐거이 이별이라는 자취가 남는다 함은 배반하고서도 기쁨이 다시 소생한 가운데서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기 때문이며

<유가08 14:04-05>

- A: 說能離間語[34(·)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)]謂或不聞[35(·)]或他[23(·)]方便[43(·),35(·)]故[+45(/),43(·),51(·)]
- B: 說能離間語[乙,x矢,1]者[xλ7]謂或不聞[5]或他[→]方便[m,5]故[xλ乙,m,1]
- C: 能 離間語乙 說x矢1{者}xλ7 謂 或 不聞(↘)5 或 他→ 方便m(↘)5xλ乙m{故}1
- D: 能 離間語를 말하는 것이라 함은, 즉 혹 듣지 못하거나 혹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하는 까닭이다.
- E: 잘 이간하는 말을 말한다 함은 혹은 듣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방법의 것이기도 한다.

<유가08 14:05-08>

- A: 此[42(·)]中[22(·),42(·)]略義[=22~32(·)]者[15~25(-),23~33(·)]謂略[45(·)]顯示離間意樂[31(·)]離間未壞方便[31(·)]離間已壞方便[31(·)]離間染汙心[31(·)]及他方便[31(·),34(·),33~43(:)¹³]應知[42(\\),51(·)]
- B: 此[七]中[3,七]略義[1]者[尸,入 1]謂略[3]顯示離間意樂[人]離間未壞方便[人]離間已壞方便[人]離間染汙心[人]及他方便[人,乙,x印]應知[ノㄱ七, 1]
- C: 此七 中 3 七 略義 1 {者}尸入 1 謂 略 3 離間意樂 人 離間未壞方便 人 離間已壞方便 人 離間染汙心 人 及 他方便 人 乙 顯示 x 印 知 ノㄱ {應}七 1
- D: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, 즉 간략히 離間意樂과 離間未壞方便과 離間已壞方便과 離間染汙心과 他方便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, 알아야 할 것이다.
- E: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, 이간하려는 뜻과 이간질에 아직 무너뜨리지 못한 방편과 이간질에 이미 무너뜨린 방편과 이간질하는 더러운 마음 및 다른 방편을 간략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 알아야 하리라.

참고문헌

- 김성주(2005ㄱ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6)』, 『口訣研究』 14, 구결학회, pp. 213-231.
- 김성주(2005ㄴ), 「석독구결의 사동 표현」, 『口訣研究』 14, 구결학회, pp. 147-169.
- 김영옥(2001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(點吐)의 해독 방법 연구』, 『口訣研究』 7, 口訣學會, pp. 57-77.
- 남풍현(2000), 「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」, 『書誌學報』 24, 韓國書誌學

13) [33(·),33~43(·)]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.

會, pp. 5-45.

박진호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2)』, 『口訣研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15-231.

서민욱(2005ㄱ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5)』, 『口訣研究』 14, 구결학회, pp. 197-211.

서민욱(2005ㄴ), 『『瑜伽師地論』 卷5·8의 點吐口訣 연구』,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.

李承宰·安孝卿(2002), 『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-誠庵本『瑜伽師地論』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-』, 『口訣研究』 9, 口訣學會, pp. 115-145.

이 용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3)』, 『口訣研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33-246.

이전경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4)』, 『口訣研究』 13, 구결학회, pp. 221-242.

장경준(2003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의 ‘지시선’에 대하여』, 『口訣研究』 11, 구결학회, pp. 189-209.

장경준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)』, 『口訣研究』 12, 구결학회, pp. 191-212.

장경준(2005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-권5, 8의 단점(單點)을 중심으로-』,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.

[305-758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 1105동 1503호]

E-mail: mkisohn@hanmail.net

접수일자: 2005. 6. 30.

게재결정: 2005. 7. 30.

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u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

—Focusing on vol. VIII, 13:08-14:08—

Son, Myong Gi

This paper surveys the contents of ‘You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 vol. 8, 13:08-14:08’, and presents a tentative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.

Key words: You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, cipher kugyol(點吐釋讀口訣)